

KA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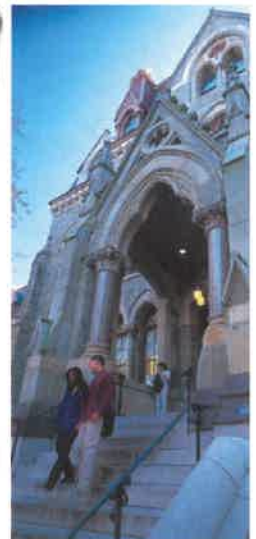
테크노경영대학원

Frontier

KAIST Management Update



Globalization of Business Education



CONTENTS

2	나침반 박성주 테크노경영대학원장	11~18	특집 "경영교육의 국제화" - 국내교육개방현황 - 국내 대학의 해외 교류 현황 - 경영교육의 국제적 평가와 국제화 노력 - 영어로 진행되는 경영학 강의 -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국제화 프로그램 - 올바른 국제화 교육의 방향	20	MBA 입시 TIP 한주호(MBA 마케팅담당)	테크노경영대학원 계간지 Frontier 2002 AUTUMN Vol. 6 No. 4(통권 21호) 발행일 2002년 10월 1일 발행인 박성주 편집인 이재규 발행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TEL (02) 958-3246 FAX (02) 958-3010 디자인 경희디자인 (02) 2263-7534
3	특별기고 라응찬(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21	개설교과목 소개	
4~5	테크노경영대학원 뉴스			22	테크노가족(신임교원) 현웅진, 석승훈 교수	
6	국제컨퍼런스			23	해외에 있는 졸업생 현지 인터뷰 이재남 홍릉시립대 교수	
7~8	MBA 개선편안 프로젝트			24~25	Executive Program News	
9	교수칼럼 허순영(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9	MBA 소감기 고유상, 임준(테크노경영 MBA 졸업생)	26	재미있는 코너	
10	교수동정코너			27	이모저모 테크노인/신간/편집후기	

글로벌 경영과 CEO



박 성 주 테크노경영대학원장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인 2000년 2월은 통신 라우터 장비 업체 Cisco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시기였다. 설립한지 불과 16

년 만에 직원 수도 총 30,000명이 채 되지 않는 기업이 시장가치(Market Capitalization) 5,000억불을 넘어서 GE를 누르고 세계 최대 기업이 된 것이다. 이 당시 Cisco의 시장가치는 반만년 역사와 인구 4,700만명을 가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4,500억불을 넘는 규모였다. 실리콘 밸리 최초의 최대기업이 탄생한 데에 대해 밸리 전체도 흥분 상태였으며 이곳의 한 지역 신문은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1조불 가치의 초거대기업이 곧 탄생할 것이며 Cisco가 바로 그 기업이 될 것이라고 크게 보도했다. 비록 Cisco의 현재 시장가치는 1,000억불에도 못 미치고 있으나 한 기업이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예이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전세계 "100대 경제 주체"에는 국가 외에 Exxon Mobil, GM, GE 등 29개 기업이 들어있다. 이들 기업의 경제 규모는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등의 국가를 능가할 정도다. 비단 외국기업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삼성전자, 한전, 국민은행, KT, 현대자동차 등 13개 기업이 포브스에서 발표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들어있다.

바야흐로 글로벌 기업의 시대다. 글로벌 기업은 해외에 자회사를 갖는 형태의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에서 세계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인 초국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글로벌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작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 NGO의 격렬한 반세계화 운동과 빈부격차의 심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화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큰 흐름이다. 1979년 스웨덴의 Ohlin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Heckscher-Ohlin 모델은

국가간 특화와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의 경제적 이득을 설명하여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자유무역증진의 결과 2001년 전 세계의 무역규모는 총생산 31조 불의 25%인 8조 불에 달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업의 글로벌화도 가속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글로벌 기업에서도 경영의 기본인 정직성, 겸소, 준비성 등은 여전히 중요한 근본 핵심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영에 차이가 나듯이 글로벌 기업에서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글로벌 기업 경영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성과 다양성에 있다.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과 함께 한 기업으로서 전체를 통제, 조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잡성이 아닐 수 없다. 13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식품회사이자 스위스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네슬레의 예를 들면 84개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60,000명의 종업원이 있으며 6,000개의 브랜드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네슬레 성공의 핵심역량은 엄청난 복잡성을 본권화를 통해 잘 관리하는 노하우이며 이는 어느 기업도 따라 하기 힘들다.

미래의 글로벌 경영자는 기본인 외국어 구사 능력 외에 극도로 복잡한 문제의 단순화, 모형화 및 분석 능력, 이질적인 문화와 조직에 대한 이해와 포용, 상호 조화능력을 핵심역량으로 갖추어야 한다. 최근 한 외국인 컨설팅회사의 서울대표는 한국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CEO들이 미국 등 선진국의 글로벌 CEO와 비교해 볼 때 업무 능력과 조직 관리면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비단 외국 컨설턴트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한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에,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은 CEO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 기업 CEO의 글로벌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이다.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와 겸업화

라 응 찬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나라경제의 질적수준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산부분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인프라의 수준이 중요한 척도이며 따라서 이 두 부분의 균형있는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몇차례의 경제위기 이후 각 기업들은 기술개발 및 수익성 제고 등의 질적 성장과 함께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몸집 불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0대 무역대국이라는 제조업의 위상에 비해 금융부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이 국내전문가들의 자평이다.

현재 전세계 금융계의 판도는 미국과 유럽계 은행이 양분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럽계 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미천한 미국계 은행은 인수합병으로 대형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초대형금융그룹으로 탄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에는 약 1만여개의 은행이 난립된 상태이다. 일본내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자산이 1조달러 이상인 미즈호 금융그룹이 탄생하는 등 4대 메이저로 재편되었다. 선진국의 금융권은 이러한 합병으로 상위 3대 은행의 자산규모가 자국은행 전체 총자산의 30% 이상을 점유하게 되었다. 결국 선진국들도 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완결이 아닌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도 금융업계의 최대화두는 M&A를 통한 대형화와 금융권내 이업종간 상품제휴를 통한 업무통합의 움직임이다. 국내 금융업계는 여기에 민영화라는 큰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IMF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은행권에 정부지분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이며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는 부분과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해야 하는 정부의 필요가 맞물린 결과이다.

한국경제는 IMF이후 유동성위기는 넘긴 상태이지만 민간부문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었다. 원래 구조조정은 금융권에서 시작돼 제조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전되는 특징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 체제로 정부와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민영화라는 해결해야 할 난제를 하나더 남겨둔 상태이다.

개별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적인 경쟁력강화의 추세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심화에 따른 예대마진의 축소 및 리스크관리의 측면에서도 각 금융기관들은 시장점유율 확대 및 추가적인 수익원 확보의 필요

성이 절실해 지면서 구조조정과 영업력확대에 경영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살길은 합병 등의 수단을 이용한 대형화, 겸업화를 통한 업무 제휴 및 교차상품판매로 인한 수익력 제고, 지속적인 리스크관리 등이다. 합병으로 인한 효과는 영업수익의 증대, 비용절감, 효율적인 자산배분(asset allocation) 뿐만 아니라 신용도 상승으로 인한 조달금리의 하락, 고객확보, 우수한 인재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합병의 효과는 대형화라는 것뿐만 아니라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 합병과정에서 컨설팅도 받고 회계부문이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투명성이 강화되고 자산의 클린화도 더불어 진행된다.

업무영역 철폐를 통한 자회사간 제휴란 결국 겸업화를 의미하는데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은 비용을 줄이고 고객들은 수수료의 절감 및 수익 극대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투자신탁 등 각 자회사들의 제휴를 통한 상호 강점있는 상품의 교차판매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결국 합병 및 제휴는 위기속에 기회를 잡으려는 각 금융기관들의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나 합병과 제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다. 전산을 비롯한 시스템 통합, 조직간의 문화적인 차이 극복 등이 무난히 해결될 때에 합병은 성공할 수 있다. 대형화 이후 부실 자산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일본의 금융그룹들이나 시스템통합에 실패한 뱅크원 등 미국의 합병은행 사례를 볼 때 보다 치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양적인 팽창과 함께 질적인 성과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다소 여유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배려도 중요하다. 특히 그동안 항상 손해만 보아온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니 이제부터는 주주가치의 극대화차원에서 이러한 합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AIST 200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01학년도 후기 KAIST 학위수여식이 8월 23일 오후 2시 대전본원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6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총 351명(학사 93명, 석사 113명, 박사 145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경영공학 학사 7명, 석사 8명, 박사 10명과 MBA 과정에서 10명 등 총 3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재철 교수, ITS 2002 의장으로 14회 총회 개최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린 ITS 2002(www.its2002.or.kr)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통신협회(IT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ociety)의 제14회 총회로, 의장인 김재철 교수를 비롯해 경상현 교수가 총회 고문, 안재현 교수가 프로그램 조정자, 이재규 교수가 조직위원회 회원 등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김재철 교수는 ITS 2002 대회 개최사를 통해 “서울에서 열리는 ITS 2002가 기술과 서비스, 시장, 그리고 규제 등에 대한 상충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생생한 포럼의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ITS 2002는 정책, 시장구조, 경영전략, 국제 이슈, 서비스, 기술, 인터넷과 e비즈니스, 세계화의 8개 주제에 대해 각 섹션별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특히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박사과정 한상필씨는 ITS 2002 학생 논문발표대회(Student Paper Competition)에서 1위를 차지해 통신경영 연구의 우수성을 검증받았다.

금융공학연구센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발기인 회의 개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연구센터(센터장 김동석)는 은행, 증권, 보험, 투신을 총망라한 금융권 CEO 10명과 함께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을 발족하고, 9월 4일 11명의 발기인이 모여 출범 회의를 가졌다. 포럼 발기인으로는 재경부 장관을 역임한 이규성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류시열 은행연합회장, 오호수 증권업협회장, 배찬병 생명보험협회장, 박종익 손해보험협회장, 양만기 투자신탁협회장, 윤병철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라웅찬 신한금융지주회사 회

장,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 김정태 국민은행장, 김승유 하나은행장 등이 참여했다.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은 지난해 12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연구센터가 주최한 ‘금융기관 위험관리 최고경영자 포럼’의 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 모임 형태로 결성하게 된 것. 향후 이 포럼에서는 금융산업의 최고경영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건실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각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식기반 전자정부연구센터-삼성 SDS 공동연구 산학협동 체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지식기반 전자정부연구센터(KeGRC, 센터장 김성희)와 삼성SDS(주)(사장 김흥기)는 9월 9일 전자정부 공동연구를

위한 산학협동 협정식을 갖고, 기업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모아 향후 국가 전자정부사업의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전략을 공동으로 연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정부부처의 전자정부 정책 입안자와 관련 기업인, 학계 연구자가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전자정부 관련 최신 지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국가 전자정부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전자정부 포럼(e-Government Forum)’을 운영할 예정이다. 총 25회에 걸쳐 격주로 서울과 대전의 정부청사에서 진행될 전자정부 포럼은 정책 입안자, 학계 연구자, 관련 기업 종사자 등에게 전자정부 관련 선진국의 최신 동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과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전자정부사업의 비전 및 전략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과정에서의 국가적인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규 교수, 전자상거래 전문 학술지 ‘ECRA’ 창간



세계적인 학술지 전문출판사 Elsevier Science가 발간하고, 테크노경영대학원 이재규 교수가 총괄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자상거래 전문 국제 학술지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가 8월 초 창간되었다. 이 학술지는 온라인을 통해 계간지 형태

로 출간되며, 연 1회 제본된 학술지로 배포된다. 논문 전문은 학술지 홈페이지(www.elsevier.com/locate/ecra)에서 서비스되며 Elsevier Science의 공동 학술지 데이터베이스(www.ScienceDirect.com)에서 2002년 이후에도 전문 구독할 수 있다.

유경선 유진기업 대표, 대학원 발전기금 1억원 출연



박성주 테크노경영대학원장은 7월 23일 유진기업 유경선 대표이사에게 대학원 발전기금 1억원 출연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했다. 테크노경영대학

원은 감사패 증정과 함께 대학원 수펙스경영관에 설치된 ‘기금출연자 명판’에도 유경선 대표이사의 이름을 등재했다. 최고정보경영자(AIM)과정 1기 졸업생인 유경선 대표이사는 “AIM과정에서 배운 최신 정보기술이 사업상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모교에 감사하는 뜻에서 모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금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머서 휴먼리소스컨설팅社로부터 행정시스템 컨설팅받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9월 초 세계 최대의 인사관리 컨설팅회사인 머서 휴먼리소스컨설팅(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으로부터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이번 컨설팅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장기비전으로 추진 중인 ‘세계 TOP 10 수준의 경영대학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수, 학생, 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의 일환으로 행정인력의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 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게 된 것. 그 결과, 머서 휴먼리소스컨설팅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한 평가와 보상제도 개선을 제안했는데 골자는 바로 ‘고객평가 결과 반영’과 ‘목표에 의한 관리방식의 도입’이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컨설팅사에서 제안한 행정시스템을 올해 남은 기간동안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수재민돕기 바자회” 개최

테크노경영대학원 총학생회와 과학원기독인모임 동아리에서는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사랑의 줄기치 운동’을 펼치고 있는 과학원교회(서울 홍릉 소재)와 함께 지난 9월 5일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재민

돕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학생과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박성주 대학원장, 이재규 교수, 김인준 교수, 문송천 교수를 비롯한 테크노경영대학원 관계자들과 과학원교회 김준성 목사, 최금래 집사, 이정숙 집사 등이 수재의연금을 기탁하거나 바자회 물품을 기증했다.

“MBA출신의 미래 CEO를 추천합니다” - 10월 9일, KAIST 최초로 2002 MBA Job Fair 개최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대학원장 朴成柱)은 10월 9일 MBA 졸업예정자와 이들의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을 연결하는 “2002 KAIST MBA Job Fair”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MBA 시장을 선도하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처음으로 마련한 MBA 대상의 취업박람회로 국내 MBA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에서는 참여기업들의 회사소개에 이어 일대일 취업상담과 면접이 진행된다. 이후 KAIST 출신으로 현재 McKinsey에 재직중인 윤송이 컨설턴트의 특강과 테크노 MBA 출신 KPMG 최석운 컨설턴트와 금융공학 MBA 출신 마이다스 자산운용 허필석 부장의 취업사례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 일시 : 2002년 10월 9일(수요일) 13:30~17:30

* 장소 : KAIST 서울 홍릉캠퍼스(SUPLEX경영관)

“국내 MBA 스쿨의 효시, KAIST MBA로 오십시오” - 10월 18일, KAIST MBA Open School 개최 -

국내 최초로 미국식 MBA과정을 도입, 운영중인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대학원장 朴成柱)은 10월 18일 21세기 글로벌매니저를 꿈꾸는 젊은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KAIST MBA Open School을 개최한다. MBA Open School은 MBA 진학 희망자와 파견희망기업 및 졸업생취업에 관심 있는 기관 등을 위한 입학설명회. 이번 행사는 MBA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캠퍼스내 시설소개 등으로 진행되며 최태원 SK(주) 회장의 특별강연도 있을 예정이다.

* 일시 : 2002년 10월 18일(금요일) 18:30~21:30

* 장소 : KAIST 서울 홍릉캠퍼스(1호관 대강당)

* 문의처 : 02-958-3216/3246

홈페이지(<http://kgsn.kaist.ac.kr>)참조

아시아 지역 e비즈니스의 미래 조명, 동북아 e비즈니스-IT 심포지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동북아 e비즈니스-IT 심포지엄(부제 : 제2회 아시아 e비즈니스 워크숍)을 개최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동북아시아 지역 IT 및 e비즈니스 연구를 선도하는 한-중-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 70명을 초청해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은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디지털경제 모델을 개발하고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총 8개 섹션에서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 모델, 정보보안, m-커머스, 네트워크 기술 등의 주제로 다양한 IT 및 e비즈니스 관련 경영/경제 분야 5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8월 22일 오전 9시 총괄 대회장인 박성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첫날 행사에서는 기업의 e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준비상태의 척도로 e-Readiness를 제시한 중국 청화대 징후아 후양(Jinghua Huang)교수의 발표 등 총 31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e-Readiness의 평가를 통해 CEO의 의사결정 및 e비즈니스의 전략 수립을 제안한 징후아 후양(Jinghua Huang)교수의 발표에 이어 박성주 대학원장은 한국의 e비즈니스 현황과 추세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시아 e비즈니스 시장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8월 23일에는 14편의 주제발표 후, 국내 기업현황 시찰을 위해 삼성SDS를 방문했으며, 마지막날인 24일에는 '비즈니스 게임 시스템의 구현'에 대한 논문 등 5편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한-중-일의 교수 6명을 주축으로 한 패널토의가 'The Future of e-Business in Asia'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박성주 대학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디지털경제 시대에 아시아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한-중-일 3국의 e비즈니스 협력 활성화, e비즈니스의 학문적 연구 체계 구축 등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평가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동북아 심포지엄'은 한중 양국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국 과학재단(KOSEF)과 중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가 매년 공동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그동안 동북아의 환경변화 및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열리다가 이번에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발맞춰 IT분야를 주제로 마련됐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성공리에 치러진 첫 번째 '아시아 e비즈니스 워크숍'의 논의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 2가지 주제를 아우르는 대규모 행사로 확대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한-중-일 3국의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발표국	논문 제목 및 저자
한 국	A Multidimensional Scaling Approach for Personalized Recommendation on Internet Stores(김종우 교수, 충남대) m-Commerce in finance industry(허순영 교수, KAIST) Internet Congestion Control(정송 교수, KAIST)
중 국	The Study on the Indicator System for Enterprises E-Readiness Evaluation(Jinghua Huang, Tsinghua University) The Future of Web Service: Semantic Web Service(Yong Yu,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일 본	Comparison of e-commerce in China, Japan, and Korea(Ding Xiaojun,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The Impact of SCM on Japanese Industries and Society : From the Viewpoint of Information Ethics(HIGASHIMOTO Shigeki, Meigi University)

취재 정리 | 권철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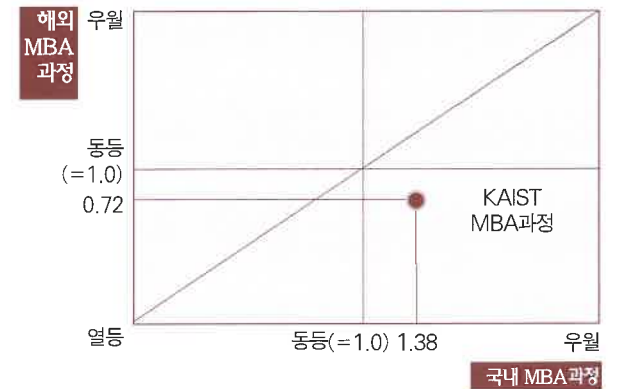
MBA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프로젝트 실시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8주간에 걸쳐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처음으로 'MBA 전공 개선을 위한 요구조사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학기 새로 임용된 MBA Director 조연주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박사과정 고준, 테크노경영MBA 민경욱, 경영정보MBA 신정인 및 MBA 사무실 황은정, 한주호씨가 프로젝트팀을 이루어 수행했으며, 지난 8월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워크숍에서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MBA 전공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직접적으로는 교과과정 개편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KAIST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AACSB International(세계경영교육협의회) 인증 절차 가시화에 따른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것도 추진 배경 중 하나다.

프로젝트는 MBA 전공 이해 관계자(재학생, 졸업생, 교수, 직원, 기업담당자)에 대한 심층면담, 설문조사, 강의계획서와 강의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분석, 국내외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4개 분야 조사를 통해 KAIST MBA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설문조사에는 재학생 126명과 졸업생 60명, 교수 22명, 직원 12명, 기업담당자 17명 등 총 237명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결과



〈KAIST MBA〉

를 남겼다. 우선 KAIST MBA의 위상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들은 해외 MBA과정(=1)을 기준으로 0.72, 국내 타 MBA과정(=1)을 기준으로 1.38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학교 운영, 외부의 평가, 학교에 대한 자부심, 입학생들의 우수성 등에서는 대체로 높은 점수를 준 반면, 교수 급여/복지, 교과목 개설, 취업 지원, 동문활동 수준 등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가장 큰 성과라면 교수나 재학생, 졸업생간 인식 차이를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수들은 높게 평가하는데 반해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은 그 반대인 항목이 많이 있었으며, 특히 홍보 효과성, 동문활동 수준, 경영공학 대비 MBA과정 중점, 학생 취업 지원 등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벤치마킹 조사에서 해외 Top 10 MBA 스쿨과의 비교 결과 KAIST MBA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일반 경영과목 보강, 입학 사정 강화, 온라인 접수 병행, 인턴십 등 보다 실무 중심의 교과 과정, 윤리 교육 강화, 동문활동 활성화, 보다 적극적인 취업 정보 제공 등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팀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도출했으며 여기에는 학교 비전, 교수 및 학생 자원 확보, 교수법, 취업지원, 동문 활동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장단기로 구분되어 포함돼 있다.

KAIST MBA가 국내 최초로 MBA Director를 선임하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MBA 개선안 프로젝트는 학교가 MBA 과정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

〈표-1〉 분석 결과 현황 및 문제점

설문조사	불만 사항 : 교수처우, 외부 강사, 취업지원, 동문활동 등 이해관계자간 인식차 : 홍보, 취업, 경영공학 vs MBA,
심층면담	재학생: 비전에 대한 이해 부족, 이수 학점 과다 교수: 교수 retention문제 직원: 정책의 비밀관성, 직원개발/처우
벤치마킹	풍부한 자원, 입학사정, 동문회 활성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교과과정 필요
내용분석	강의평가: 외부강사의 질, 평가결과 공개 강의계획서: 구체적인 학습 가이드 요구

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요구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하지만 현황이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이를 실제로 각 분야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학교측의 노력일 것이다.

취재 정리 | 김승하, 송재현기자

〈표-2〉 주요개선방안

항목	내용	비고
비전	기술을 아는 경영	단/중기
핵심역량	전문성: Hi-tech, 금융, 기술경영 글로벌 perspective	중기
자원 확보	교수 retention 문제 입학 사정 강화: 우수 학생 확보	단/중기
교과과정	최신동향을 반영한 교과목 개설 실무/현장 중심의 교과목 운영	단/중기
취업지원	전담 인력 보강 동문, 교수, 최고경영자과정, 기업과의 네트워크 활용	단기
동문활동	홈페이지 활용: 동문DB구축 커뮤니티, 교과목 포럼 열람	단기

➔ MBA Director란?

해외 비즈니스 스쿨의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MBA 프로그램의 질과 규모인데, 많은 학교에서 MBA Director에게 그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해외 MBA Director의 주요 역할에는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입시 및 취업, 동문 서비스 제공, MBA 마케팅 및 홍보 등이 포함되며 부대학원장이 겸임하거나 행정 전문가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지난 봄학기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MBA Director에 산업체와 공공기관 조직에서 인력개발과 조직관리 분야 경력자인 조연주 교수를 임용하여 세계 Top 10 스쿨로 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Interview

이번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였던 조연주 교수는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자발적으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준 팀원 학생들의 모습이야말로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세계적인 대학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강조하였다. 학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MBA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3명의 학생을 만나보았다.

- 프로젝트에 참가한 팀원 학생들 : 고준, 민경욱, 신정인

1.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고준: 박사 말년차에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정인: 설문 조사에 관심이 있었고, 전공 개선 관련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지원했어요.

민경욱: 앞으로 일을 하면서도 이 곳 출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MBA가 잘 돼야 졸업 후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2. 프로젝트에서 맡았던 역할은?

고준: 저는 설문조사를 총괄하고 시사자들의 MBA 평가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신정인씨와 민경욱씨는 설문서 작성과 국내/외 MBA들을 벤치마킹하는 작업을 해주셨고요.

3.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신정인: 처음에는 학교에서 문제점들을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미 학교에서 대부분 파악이 되어있고 대책도 수립되어 있지만 실천이 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새로운 조사와 계획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민경욱: 해외 벤치마킹을 할 때 리소스가 한정돼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기는 했지만, 팀웍이 워낙 좋았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고준: 경영공학전공(석박사과정) 입장에서만 학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MBA 입장에서 학교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4. MBA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민경욱: 당연한 이야기지만, 먼저 자신의 목표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든 전공이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신정인: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인 것 같아요. 졸업생들 얘기를 들어봐도 열심히 했다는 사람일수록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든요.

취재 정리 | 김승하, 송재현기자

디지털 경영의 허와 실



허순영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용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차를 몰아야 할 것이다. (1) 별 이유없이 하루에 두 번씩 갑자기 차가 내려갔고 (2) 에어백 시스템은 터지기 직전 반드시 Are you sure (맞습니까)? 를 묻고 운전사가 OK해야 비로소 작동하며 (3) 자동차 엔진을 끄려면, 거꾸로 시작 버튼부터 눌러야 하고 (4) NT 자동차를 사지 않는 한, 한 사람 밖에 차를 탈 수 없으며, NT 자동차를 사게 되면 한 사람 더 탈 때마다 사람 수 만큼 추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 바라건대, 위와 같은 문제 투성이의 차를 몰더라도, 그처럼 싸고 효율적인 차가 있다면 감수할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정보기술 발전의 열매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닷컴 회사들의 몰락과 험난한 테크놀로지 버블 붕괴로 시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되었다. 현실세계에는 여전히 디지털화 될 수 없는 아날로그 형태의 실물재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어의 법칙이나 멧칼프 법칙이 현실에서 동일한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정보 기술은 정보재든 실물재든 기업의 가치사슬에 적용되어서, 비용절감과 차별화 및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구현자(enabler)로 인식되고 있어, 이른바 디지털 경영시대를 열고 있다. 가치사슬위에서는, 각 단계 별 정보가 정보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각 활동들이 긴밀하게 연결되거나, 하나로 압축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더불어, 경영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전통적 supply push 경영방식에서는 기업이 선정한 제품을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중시해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보편화를 통해 고객들이 제품 비교 및 사용 경험을 쉽게 나눌 수 있게 되고, 기업의 판매 방식

도 고객 일대일 방식으로까지 진화되면서, 좋은 제품은 기업이 아닌 고객이 정한다는 시장 원리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디지털 경영은 이런 추세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demand pull식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보기로 시스코에서는 제품개발을 할 때, 시장의 추세를 중시하고, 고객의 요구 변화 파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기존 유통망에서 얻어지는 정보 외에 콜 센터로 오는 고객의 불만 사항, 인터넷을 통해 얻어지는 고객 게시물, 전자메일 등 고객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활용해서, 고객의 요구를 쉽게 반영한다.

한편, 거짓 재무제표와 회계 분석으로 넘어진 엔론(Enron)사, 월드컴(WorldCom)사에서 밝혀지는 기업의 허세와 실제 모습은, 우리가 보완해야 할 디지털 경영의 또 다른 기본 원칙을 알려준다.

첫째, 디지털 경영은 열린 경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모든 재무 및 경영의 정보에 있어 투명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외부 사람들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기업의 성실성(Integrity)을 인정받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 주식 시장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가 세계적 회사 재무적 성과에 대한 시장의 불신 및 회의론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디지털 경영은 회사의 경영지표 (제품과 프로세스의 상세한 부분까지)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무 회계 정보를 모든 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이 회사의 상태를 알게 하며, 궁극적으로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책임 통제 체계가 디지털 경영의 축을 이루는 전산 시스템에 체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Garbage In, Garbage Out란처럼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전산 시스템은 늘 오류로 범벅된 보고서를 양산할 뿐이다. 최근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직원이 고객의 자산을 유용하여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적발되지 않는 것은 내부 책임 통제 및 감사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과금을 중복해서 내고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것 역시 이런 기능이 미비해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영 자체를 감사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열린 경영이 가능해지고, 회사의 건전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교수 동정

전덕빈 교수, 영국논문평가기관 Emerald로부터 최우수논문 저자로 선정



전덕빈교수

전덕빈 교수가 최근 영국의 논문 평가 기관인 Emerald로부터 해당 논문의 최다 인용횟수를 인정 받아 최우수논문(Citation of Excellence) 저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인 'State Space Trend-cycle Decomposition of the ARIMA(1,1,1) Process'는 지난 97년, 제자인 주영진 박사(현 배재대 경영정보학부 교수)와 공저한 것으로 경제 및 금융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시계열에 내재하는 장기추세와 단기변동의 분리 이론'을 다룬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서구 유명 이론들의 많은 오류들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으며, 이를 미국 거시경제 변수에 적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덕빈 교수는 경기변동과 통신, 신상품 수요 예측 등 경영과 경제 예측 분야의 전문가로 경영과학, 통계, 계량경제, 마케팅 등의 15년 이상의 학제적 연구 수행이 이번 최우수 논문상을 통해 세계 우수 기관들에게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들의 연구연가(안식년) 동정



김영배 교수



김보원 교수

내고 있다. 연구연가를 마친 김영배 교수는 작년 8월부터 1년 동안 미국 워싱턴 대학의 기술기업가 센터(University of Washington, Center for Technology Entrepreneurship)에서 첨단 사업 벤처기업의 성장과정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캐나다



김영길 교수

김영배 교수와 김보원 교수가 연구연가를 마치고 돌아왔으며, 김영길 교수가 안식년을 맞아 연구연가를 보

컬럼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글로벌 경영환경과 e비즈니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돌아온 김보원 교수는 국제화에 대한 생생한 시각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학기부터 연구연가를 시작한 김영길 교수는 현재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ERP와 CRM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신임/초빙 교수 부임 및 보직 교수 발령



유성재 교수



장석정 교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가을학기부터 재무, 마케팅 및 경영 분야의 교수진이 새로 부임하였으며, 보직

교수에 대한 발령이 있었다.

9월 1일부로 임용된 신임교수로는 재무 분야의 석승훈 교수와 마케팅 분야의 현용진 교수가 부임하였다. 석승훈 교수는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현용진 교수는 위스콘신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숙명여대 교수를 거쳐 아주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또한 초빙교수로 유성재 교수와 장석정 교수가 부임하였다. 유성재 교수는 미네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 박사 출신으로 한국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경제사회연구회 기획평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석정 교수는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영대학 교수로, American Business Review,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Education 등의 편집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한국금융선물협회 해외자문교수, 한국금융연수원 객원교수 등을 지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내부의 변경된 보직으로는 부대학원장에 한민희 교수, 테크노경영 및 환경경영/정책 전공책임교수에 김영배 교수, 최고벤처경영자과정 책임교수에 배종태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피츠버그대학에서 연가 중인 김영길 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했다.

취재 정리 | 권철현기자

Globalization of Business Education

Frontier Special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2002 AUTUMN

Globalization of Business Education

많은 대학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화 문제를 강조하고,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교육 시장의 개방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대학입학 정원이 지원자 수를 초과하여 대학의 생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인 교육 기회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대학들이 진정한 '교육의 국제화'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국제화 방안인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국내 대학들이 국제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들을 되짚어보며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국제화와 그 추진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 globalization을 국제화 또는 세계화로 풀이할 수 있는데 본 기사에서는 '국제화'라는 말로 통일하였다)

교육 개방 현황

2001년 유학생 통계를 살펴보면, 해외 유학 중인 유학생이 15만 명에 이르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도 11,000명이 넘는다(그림 참조). 재학 중 교환학생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는 학생도 크게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교육에서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교육 시장 개방 문제는 무역 협상에서도 논의되는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2년부터 미국과 협상이 시작되어 97년에 학원은 완전 개방이 이루어졌고,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포괄적인 교육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교육 개방의 핵심은 결국 대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선진국 대학들이 한국에 진출할 매력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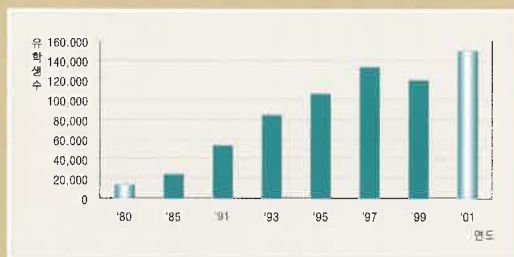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외국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97년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98년에는 외국대학의 국내 설립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 과정의 4년제 대학, 석·박사 대학원 과정, 산업 대학, 그리고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개방을 허용하였다.

그렇지만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대학은 한 곳도 없다. 우선 외국대학이 국내에 대학을 설립하려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으로 설치,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경영에서 수익이 나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으며 이사 선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또한 수도권 이내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없는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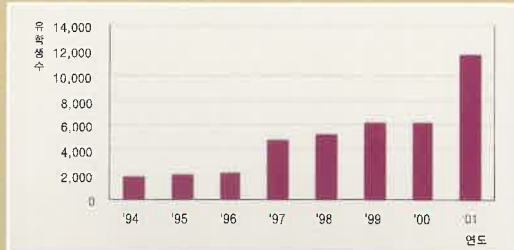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 4월에 세계 수준 대학의 문화와 제도를 국내 대학에 이식시켜 교육 내용과 방법상의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세계 수준의 외국대학원과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단계로 외국 우수대학원의 설립 운영요건의 완화를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외국 우수대학원의 분교를 유치하거나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이 석·박사 학위과정 공동 운영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수업연한 제한 규정과 학교 설립, 운영 요건 등을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주 내용이다.

대학 개방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국가 경쟁력,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 대학 시장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좋은 교수들이 그들의 네트워크를 회생하면서까지 한국에서 몇 년간 강의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며 좋은 학교란 좋은 도서관과 실험실습 시설, 연구 열기와 이에 대한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 만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공감대 형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국외 한국인 유학생수>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1 국내외 유학생 통계

취재 정리 | 송재현기자

대학들 간에 학생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 대학들은 학교 홍보와 신입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해외교류는 겉보기에만 화려할 뿐 그 내용은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학교육을 구성하는 교수, 학생, 학교의 삼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알아보기로 하자.

국내 대학의 해외 교류 현황

국제 학술교류 정도나 세미나 횟수 혹은 외국저명지널의 논문발표 수 등을 통해 교수진의 국제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 대학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수의 수를 통해서도 해외대학과의 교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인 국제화 정도를 보다 쉽게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최근 각 대학에서 외국인 교수 초빙을 위한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작년 서울대가 외국인 교수를 연간 100명씩 3년 내에 전체 교수정원의 20%선인 300명 수준으로 늘릴 것을 발표한 데 이어 고려대도 오는 2005년까지 외국인 교수를 3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물론 상당부분 정부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계획이지만, 외국인 교수에 대한 수요와 임용 확대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재직중인 외국인 교수는 1,262명(전임교원)으로 이는 대학 평균 약 7명이며, 전체 교원 45,921명의 약 2.7%에 불과한 아주 작은 비율이다. 비전임교수를 합한다 하더라도 1,980명으로 대학 당 평균 11명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 전임교수의 대부분이 외국어 관련 회화지도 교수이므로 학문연구와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교육을 담당하는 학술교수의 임용이 시급한 과제이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많은 대학들이 수요가 있을 시 외국인 교수를 수시로 채용할 뜻을 비추어 외국인 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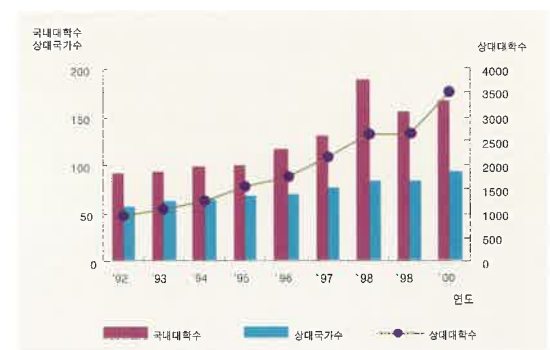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세계변화를 이해하고 각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며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선 대학들은 당연히 현교육과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각 대학들은 국제화의 일환으로 외국대학들과 활발한 자매결연 및 학생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학의 해외교류는 겉보기에만 화려할 뿐 그 내용은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0학년도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 체결 및 학점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은 166개교이며 상대 대학 수는 3,484개에 이른다.

대학들은 자매결연을 통해 교수 및 학생의 교류, 학술 정보 및 자료 교환, 공동 학술연구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166개 대학 중 56개 대학에서는 학점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 학생을 내보내긴 하지만 외국학생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외국 대학과 제휴 형태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산업대의 경우에는 지난해 영국의 UNN(University of Northumbria at Newcastle)과 '생산시스템 및 설계공학' 교과 과정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4년 과정을 이수하면 양교의 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계명대는 99년부터 폴란드 쇼팽음악원과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 중인데, 국내에서 쇼팽음악원 교수들로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국내에서 강의를 듣고, 2학기부터 폴란드 현지에서 2년 과정을 이수하면 학·석사 학위를 받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한국외국어대, 숙명여대, 세종대, 수원대, 용인대, 대진대 등에서는 첫 2년은 국내에서, 나머지 2년은 외

<연도별 자매결연현황>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2



국대학에서 공부하는 2+2 공동학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또 국내 학생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과 국가의 위상제고라는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항인 것이다. 실력 있는 교수가 국제에 상관없이 임용되고 교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학생간의 교류도 활발해 질 때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진정 '국제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경험과 문화 그리고 지식을 세계 각국의 학생, 교수와 나누는 일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더 이상 국제화라는 것이 대학의 정책적 목표가 되지 않을 때 우리 대학도 진정한 국제화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 및 정리 | 김정배, 송재현기자

경영대학원교육의 국제적 평가와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국제화 노력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외부의 눈을 통해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보다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경영학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적인 경영교육 평가 기관과 평가방식을 살펴보고, 세계 수준의 경영교육을 위해서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 경영대학원 평가 기관들

경영대학원 평가는 전세계의 대학생, 대학원생, 기업 담당자를 포함한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여러 기관들에서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와 홍콩의 아시아 위크(Asiaweek), 그리고 경영대학 인증기관인

AACSB International(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International: 세계 경영교육협의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의 시사 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誌)는 1983년부터 대학 평가를 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을 인정 받고 있다. 각 대학원마다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경영대학원 평가 기준은 대학원 프로그램 평가, 졸업생 평균 초임, 취업률, 입학생 수준 등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대학원 자체 평가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홍콩의 경제 주간지 아시아위크도 1998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대학 평가를 시작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0년에 실시했다. 아시아위크는 종합대학과 과학기술대학, MBA를 나누어 평가하고 있으며 MBA 평가 기준은 유에스 뉴스와 비슷하지만 풀타임, 파트타임,

경영대학교육 국제평가기관 및 평가 기준

	US News and World Report	Asiaweek	AACSB International
평가 기준	-프로그램 자체 평가 (학과와 MBA 디렉터) -프로그램 기업 채용자 평가 -졸업생 평균 초임 -졸업시 취업률 -졸업후 3개월 이내 취업률 -입학생 평균 GMAT 점수 -입학생 학부 학점	-학생 성적 -교수 자원 -기업과 연계 정도 -졸업후 3개월 이내 취업률 -졸업후 평균 초임 -IT 인프라	-재무, 마케팅, 경제, 생산, 조직 등 균형적인 교육 -커뮤니케이션 스킬, 계량 분석, 컴퓨터 활용 능력 -미션에 입각한 필수와 선택 과목
특징	학과와 MBA 디렉터에 의한 자체 평가 비중 높음	-풀타임, 파트타임, 고위경영자 프로그램을 따로 평가 -교수나 학생의 현업 활동을 매우 중시	-순위가 아니라 인증이 목적 -5년 인증 과정과 2년 인증 과정이 있음



고위경영자 프로그램을 따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AACSB International(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International: 세계경영교육협의회)는 1916년에 하버드대, 예일대, 펜실베이니아대 등 미국 유수대학들이 초기 멤버로 설립되어 경영대학에 대한 인증을 주는 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경영대학은 AACSB International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제 표준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인정 받으며 미국 대부분의 경영대학들은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서울대만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인증에 걸리는 기간은 학교 사정이나 수준에 따라 5년 과정과 2년 과정이 있는데 현재 테크노경영대학원은 2년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는 좋은 평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 인증과 함께 해외 유수 경영대학들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올초 프랑스 ESCP-EAP European School of Management, 독일 University of Mannheim, 미국 University of San Francisco와 학생 및 교원교환을 골자로 하는 공식협정을 맺었다. 또한 유럽 저명 경영대학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인지도 제고와 유럽경영대학의 프로그램인증(EQUIS) 취득을 위한 필수조건인 유럽 경영협회(EFMD)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4월초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AACSB International 연례회의 후 결성된 Global Technology and Management Consortium(GTMC)은 테크노경영대

학원의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을 할 것으로 보인다. GTMC는 테크노경영대학원과 같이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중시하는 경영대학원들의 모임으로 현재 멤버로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을 비롯해 U. of Maryland (미국), Ceram (프랑스), Delft(네덜란드), Technion (이스라엘), U. of Science and Technology(홍콩), AIT(태국), Arizona State U.(미국)가 있고 Carnegie Mellon U.(미국) 등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이 추가 가입할 예정이다. 1~2년후부터는 Global MBA를 공동으로 제안하고 공동 학위를 수여하는 방안도 계획중이다.

이처럼 활발한 국제화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테크노경영대학원은 International Center/GLI를 설치했다. 이는 기존 GLI, 국제협력, 해외연수 파트를 통합하여 모든 국제화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이고 총괄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학생해외연수프로그램으로는 RPI, San Francisco, 상하이,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Simulated Immersion practice 프로그램, 금융공학 해외연수 등이 있다. 교환학생프로그램은 대만의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태국의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의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RPI), 프랑스의 Ceram Sophia Antipolis 및 ESCP-EAP European Management School, 독일 University of Mannheim 등과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취재 및 정리 | 김정배, 김승하 기자

영어로 진행되는 경영학 강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세계 수준의 경영대학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세운 장기발전 전략(Vision for World Top 10) 가운데, 학사 및 교육 활성화 부분에서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의 국제화'이다. 유수 외국 경영대학원(미국, 유럽, 아시아)과의 연대 운영을 통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전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한국의

경제와 기술, 경영, 정책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의욕적으로 영어 강의를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리더십과 조직관리(Leadership and Organization Management), 전략경영(Strategic Management),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생산경영론(Global Operations Management), 기업재무정책(Corporate Finance), 국제금융시장(Global Financial Markets), 이(異)문화관리(Cross Cultural Management), 테크노경영국제화 실습(Global Immersion Practice), 국제회계(International Accounting), e비즈니스개론(Informa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국제마케팅(Global Marketing), 국제재무정책(Multinational Corporate Finance), 투자분석(Advanced Investment Analysis), 계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 for Management), 경영사례연구(Case Studies in Business) 등 약 30여 개의 과목이 영어로 개설되고 있고, 그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영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에 따르면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서 영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었고 영어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 외국 대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음으로써 국제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영어수업이 가지는 큰 장점이라고 했다. 이러한 영어 수업을 통해서 경영공학 학생들은 국제 저명학술지에 실릴 수준의 연구논문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국제학술대회에서 자신 있게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되며, 또 MBA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본인의 전공과 밀접한 비즈니스 회

화 능력을 습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영어 강의로 인해 교수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단순히 언어상의 문제로 수업의 일부만을 이해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게다가 교수와 학생 간의 활발한 의사교환 및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테크노경영대학원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학생 및 교수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외국 교수나 학생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교수진의 일정 비율을 영어권의 외국인 교수로 영입하여 전공 교육자제를 영어로 진행하고, 부설기관인 글로벌 리더십 연구소(Global Leadership Institute)를 통해 각계 인사를 초청하여 영어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폭 넓은 경영지식과 더불어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또한 주요 경영대학원과의 전략적 제휴와 교류를 추진하여 주요 선진 대학의 각종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파견시키고, 선진국 학생의 KAIST 교환방문, 개도국 학생의 유학 지원 등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국제적 시각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어 강좌를 개설하는 교수나 이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영어강좌의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취재 및 정리 | 김문용 기자



글로벌 리더는 우리가 만든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국제화를 위한 전략적 시각과 새로운 미래와 혁신을 창조하는 리더십을 중점 교육하여 사회에 필요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화 교육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국제 협상

(International Negotiation) 등 국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실무적인 교과목들을 매년 추가하고 있다.

이 중 테크노경영 국제화 실습(Global Immersion Practice)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대



이선 등의 목표로 진행되었다.

금융공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는 매년 금융공학 2년차 학생들이 봄학기 동안 금융MBA에서 연계하고 있는 미국의 대학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그곳 학생들과 강의를 듣고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런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지식과 감각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국제 경영 및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글로벌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 훈련, 기업 경영 전략 등 경영상 주요 이슈들을 청중들에게 영어로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우수한 시설을 갖춘 교실에서, 우수한 교수가, 우수한 강의를 하는 것만이 학교 교육의 목표는 아니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목표인 '글로벌 리더 양성'은 현대 경영학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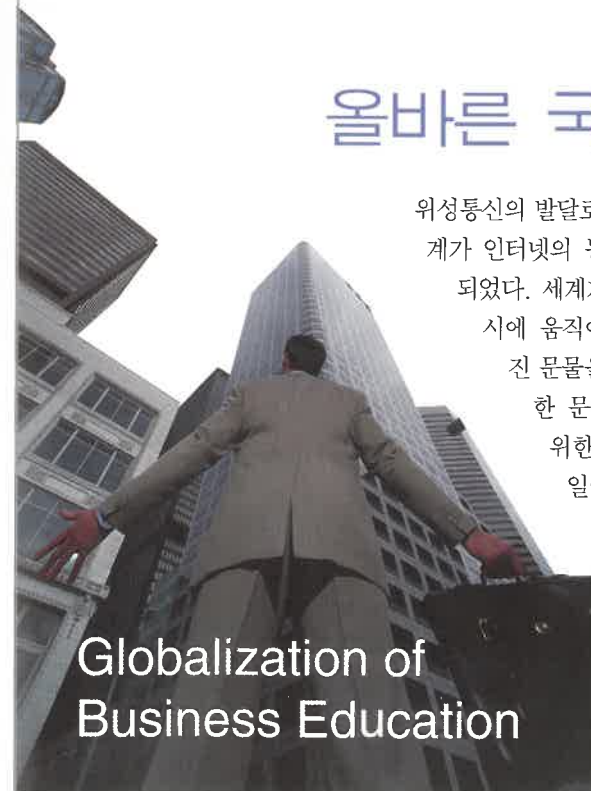
취재 및 정리 | 이인팔 기자

올바른 국제화 교육의 방향

위성통신의 발달로 1일 생활권이 된 전 세계가 인터넷의 등장으로 동시 생활권이 되었다. 세계가 점점 한 방향으로 동시 움직이지만, 그 이면에는 선진 문물을 습득하여 자국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차별화의 움직임 또한 일어나고 있다. 국제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라(Think global, act local.)는 말은 국제화 시대에 우

리가 해야 할 행동지침을 한 마디로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시장의 개방 움직임 속에 특히 국가 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되는 대학 교육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학 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대학들은 신입생 확보와 대학 홍보를 위해 화려한 외양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내실 없는 해외 교류를 시행하고 있고, 이공계 학생 지원 정책 제안들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정책조차 유학 지원 위주로 흐르면서 한편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심화되어 국내 대학원들은 학문적으로 고사할 위기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등 대학 교육의 국



Globalization of Business Education



Globalization

제화 문제는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내외환의 위기에서 국내 대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구 1만 명당 대학생 수가 495명으로 미국의 540명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이지만 과학 논문 인용색인(SCI)에 등재된 국내 대학 전체 논문수가 일본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월간조선 2000년 11월 호 조사) 현재 수준에서 해외 대학과의 경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영어 강의의 양과 질의 확대**이다. 우수 경영대학원과의 연대운동을 통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의 경제와 기술, 경영,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어 수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국제 감각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과목의 경우 지적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 학생 및 교수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의 비율을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높이고, 영어권의 외국인 교수 영입이나 주요 경영대학원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외국교수 및 학생들과의 교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외 대학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교환학생 등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기회가 학생들에게 폭넓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국적인 토양에 맞는 한국적인 경영학 성공사례를 개발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경영학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경영사례나 전략은 미국이나 유럽 기업의 내용을 주로 다룬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사용할만한 우리 스스로 생산해놓은 자료가 거의 전무

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어로 된 자료는 백안시했던 우리의 자세도 큰 몫을 차지하였다. 많은 한국기업이 점차 글로벌 기업화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정보 제공자가 되어 그 동안 묻혀졌던 우수 경영기법 및 사례에 대해 재조명해보고,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자료는 널리 알려 우리에 맞는 경영교육, 경영학 사고를 심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전자통신 우수사례 공모전'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끝으로, **국제수준에 맞는 경영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체적인 예산확보**이다. 대학교육은 교육환경에 투자한 만큼 교육의 질로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최근 e비즈니스 등 신학문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자재확충을 위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산부족을 이유로 많은 대학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족은 우리 대학들이 안고 있는 만성적인 질적인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요망된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기부금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각종 정기간행물의 발간, 국내외 주요행사의 개최,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을 비즈니스화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대학교육을 국제화하기 위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교의 전통을 세우고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일**이다. 국제화를 위한 정책과 장기계획의 밑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고 실제로도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그런 정책들을 현재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으로서 해야 할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들'을 꾸준히 실행하고 장려하는 곳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대학이 본연의 일에 집중을 하면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그 결과물 중 자연스럽게 국제화가 이루어져야지 국제화를 위한 국제화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에 충실하고 그 충실함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적절히 조합이 되었을 때 진정한 국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취재 및 정리 | 이인팔, 송재현, 김문웅, 김정배 기자

[졸업한 MBA 선배들을 찾아서]

테크노경영대학원생이여, *All-court* 플레이어가 되라!

성공!

이 한 단어는 경영을 한다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갈망의 대상이지만 과연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어렵고 다분히 주관적인 성격을 띠게 되기 마련이다. 급여 수준, 타인의 평가 등이 성공의 잣대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MBA성공사례에서는 산업계 각 분야에서 MBA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였다고 평가하는 졸업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현주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인터뷰는 테크노MBA 과정 졸업 후, 한국신용정보 CB(Credit Bureau)사업실에서 근무하는 임 준씨와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 담당 연구원으로 있는 고유상씨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KAIST MBA가 두 분에게 일종의 블랙박스였을 것 같습니다만, 과정 동안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들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유상



임준

(고유상, 이하 '고') KAIST MBA 과정에서 한국 벤처 기업의 현실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벤처 기업 대상의 사례 연구에서 벤처 기업이 인사/조직, 기업전략, 시장 분석, 마케팅 등 여러 가지 경영의 핵심 기능들이 취약하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Entrepreneurship'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절실히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임준, 이하 '임') 힘든 텀프로젝트를 마치고 프리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의 보람은 모든 KAIST MBA동문들이 공유하는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웍이 힘들었던 만큼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많지만, 지난 MBA시절의 하루하루가 저에게 무척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교환학생으로 미국 RPI 경영대학원에서 보냈던 지난 봄 학기는 무척 기억에 남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KAIST MBA를 통해 현재 혹은 미래에 자신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고) MBA 과정에서 '시장과 고객'이라는 대명제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업이나 산업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이공계 출신인 만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커다란 밑거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임) CB의 중요한 부분인 데이터마이닝의 경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응용 단계입니다.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마케팅 전략과 같은 각종 경영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의 이윤을 확대시키는 일. 바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KAIST MBA에서 배운 마케팅, 재무, 경영전략 지식들과 사례들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직접 활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KAIST MBA의 선배로서, 새로이 진학하려고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 KAIST라는 학교의 특성을 깊이 생각하고 진로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KAIST MBA는 해외MBA에 비해 역사가 짧으므로, 현시점은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입학만으로 어떤 공인된 자격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면 옳지 않죠. 앞으로 KAIST MBA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은 인프라이고, 스스로의 능력과 커리어를 개척해 나갈 의지를 먼저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 지도교수님이 늘 강조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MBA는 All-Court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즉, 비즈니스현장을 농구게임에 비유한다면 MBA는 가드, 센터, 포워드 등 모든 포지션의 기능들을 다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전 이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각각 학생들마다 나름대로의 목표가 다르겠지만, 보통 MBA를 목표로 하는, 특히 한 회사의 최고경영진을 목표로 하는 테크노 MBA의 경우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마케팅, 재무, MIS, 생산 등 각 분야의 대표적인 과목들을 골고루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이론뿐만 아니라, 사례연구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팀 단위로 수행하게 되는 사례연구를 통해 익힐 수 있는 실무감각과 팀웍은 장차 MBA로서 여러 분야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Wall Street Journal, Business Week, The Economist와 같은 Journal을 반드시 구독하면서 "Keeping Current"하십시오. 국제적인 감각과 함께 MBA 마인드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KAIST MBA, 결코 쉽진 않지만, 힘들게 고생한 만큼 값진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 역량과 마인드를 함께 갖춘 MBA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취재 정리 | 권철현기자

KAIST-MBA 동문이 되고 싶으세요?

해마다 11월 MBA 입시 시즌이 되면 대학원은 입학문의와 상담으로 분주해진다.
이 코너에서는 입학준비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정리해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동문이 되고자 하는 지원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보았다.

Tip 1. 종합평가란 것을 잊지 말자

서류전형에서는 영어성적, 직장경력, 학부성적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만회는 가능하다. 직장경력이 없는 학부졸업예정자가 영어성적과 학부성적, 다양한 과의 활동을 어필함으로써 합격할 수도 있고, 학부성적이 좋지 않은 직장인이 영어성적, 현재 업무수행능력 등을 통해서 입학이 가능하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은 면접시 물어볼 수 있으므로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Tip 2. 우수성 입증자료로 업그레이드 하자

서류전형 무사통과를 위해 GMAT이나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지원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GMAT이나 각종 자격증은 입시사정(우수성입증 자료 부문)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합격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된다.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우수성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우수성입증 자료가 있다면 대화소재도 다양해져 긴장된 면접장 분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

Tip 3. 서류는 확인 또 확인

원서접수기간에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다시 와서 서류확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재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재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라면 원본확인을 받아 사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영어성적은 접수일 기준으로 만 3년 이내의 성적표만 유효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입학지원서류 양식이 바뀌기도 하니 반드시 당해년도 서류인지도 확인하자.

Tip 4. 보다 개성 있는 나만의 지원서를 만들어 보자

예전에는 에세이에 지원동기, 면접계획, 졸업 후 계획 등을 자유롭게 적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주제에 따라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주제는 해외 경영대학원처럼 지원동기, 진로계획, 경험, 경영인으로서의 자질 등으로 주어지며 2장 이내에 국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주어진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전형에서 타

경쟁자와 크게 차별화할 수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게 독특하고 차별화되게 서술하는 것도 중요하다.

Tip 5. 면접은 당당하게! 기죽을 필요 없다

서류전형을 통과했다면 면접에 방심하지 말자. 자칫하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영어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학부전공이나 직장경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을 하기도 한다. 대학원 입학을 위한 면접이자 CEO의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여 준비하면 된다. 면접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하니 당황하지 말고 자신 있게 임하자!

Tip 6. 입학게시판을 활용하자

테크노경영대학원 입학게시판을 잘 활용하자. 입학 요강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자세한 내용이나 외국MBA와의 비교자료 등은 홈페이지내의 입학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시판에 등록된 글 수만 해도 이미 5천 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다. 글을 올리고 답변해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기존의 게시물을 확인하는 게 보다 능률적. 그래도 부족할 경우 글을 올려보자. 재학생, 교직원들의 친절하고 자세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단 질문을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올리도록 하자. 질문의 내용이 두리뭇실하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얻기 힘들다.

Tip 7. 영어시험이 바뀌었다.

올해에는 ETS에서 출제하는 기관토플시험(ITP)을 폐지하고 KAIST에서 자체 출제한 영어시험으로 대체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토플문제가 ITP에서 그대로 출제된 사례가 있어 시험의 공정성확보가 어렵기 때문. 영어시험은 당초공고한 날짜(11월 22일 17:00~18:00)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영어시험은 토플유형으로 Section I 영역(Listening Comprehension)은 생략된다.

한주호 (MBA 마케팅 담당)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과목 소개

매 학기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는 약 50여개의 과목들이 개설된다. 이번 호에서는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구성을 본 대학원이 지향하는 교육 정신에 맞추어 구분하여 조감해 보았다. (2001년, 2002년 개설 교과목 기준)



분 야	개설 교과목
조직관리 전략	경영커뮤니케이션, 기업가정신과 창업, 디지털 경제학, 리더십과 조직관리, 미시경제분석, 인터넷동향 및 산업분석, 인터넷사업전략 및 사례연구, 전략경영, 전략경제학, 정보통신기술정책, 조직설계론, 조직행태론, 한국경제론, 협상전략
MIS	경영정보시스템, 경영정보 사례연구,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무선통신, 보안 및 전자지불시스템, 분산 데이터베이스, 사물레이선, e비즈니스 시스템 개발, e비즈니스 실습, e비즈니스 정보기술, 인터넷기술개론, 재무정보 시스템, 전략정보 시스템, 전자상거래, 정보시스템 분석설계, 정보처리실습, 정보통신 시스템, 정보기술과 응용, 정보시스템 감사 및 보안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론, 지능정보시스템, 컴퓨터기술 개론,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회계정보 시스템
R&D	기술경영 및 전략, 기술경제성 평가, 기술혁신관리, 기술혁신이론과 전략, 신기술동향, R&D 경제학
생산서비스	산업생태학 및 환경관리 체제, 생산시스템 분석론, 생산전략과 공급사슬 관리, 서비스 운영 전략, 자원 환경 경제학, 환경 경영론, 환경 에너지 정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이론, 마케팅 전략, 마케팅 조사론, 마케팅 촉진론, 벤처 마케팅, 소비자행동론, 인터넷 마케팅, 하이테크 경영, 고객관계관리
재무/금융/회계	관리회계, 금융공학 연구방법, 금융위험 관리 기법, 금융공학의 최신동향, 금융기관론, 기업 재무 정책, 기업인수합병,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보험론, 선물 및 옵션, 수치해법의 재무응용, 재무론, 재무제표 분석, 재무회계, 증권거래 및 분석, 채권론, 투자분석, 파생 금융 상품, 화폐 금융론
의사결정방법론	게임 이론 및 응용, 게임이론의 고급논제, 경영수학, 경영통계 분석, 계량 경제학, 계량 분석, 다변량통계분석, 수리계획법, 연구 방법론, 예측 이론 및 응용, 의사결정분석과 응용, 통계적 분석 방법론, 통신 경영 분석, 확률 및 통계
국제화	이문화 관리(Cross Cultural Management), 국제 금융시장(Global Financial Market), 국제 생산경영(Global Operation Management), 국제 경영(International Management), 국제재무정책(Multinational Corporate Finance)

※ 아래 사이트에서 모든 교과목 정보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kgsmweb.kaist.ac.kr/course/COURSE_INFO/

취재 정리 | 김승하, 송재현기자

테크노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신임교원 소개

이번 가을학기부터 새롭게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 임용된 현용진 교수와 석승훈 교수. 이들에게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 오게 된 동기와 소감,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여쭙봤다.

현용진 교수



마케팅을 전공한 현용진 교수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회사에서 사업/마케팅 기획을 담당했고,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자원경제실에서는 자원수급예측/정책개발담당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숙명여대를 거쳐 아주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현 교수는 이번 학기부터 소비자행동론을 강의하며, 강의 및 연구분야는 소비자행동이론을 촉진관리에 적용하고 산업조직 및 조직행위이론을 유통경로관리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 교수는 "연구를 통해 학자로서의 주체성(identity)을 느끼기 위해 이 곳에 오게 되었다"고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가족이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 대해서는 건설적이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교수 사회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으며, 한국 현실에서 볼 때 매우 학생 중심적인 학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 교수는 학생들에게 남의 긍정적인 면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이나 요구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장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전략적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B.A.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978)
- M.S.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1981)
- Ph.D. in Busines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89)

석승훈 교수



재무학을 전공한 석승훈 교수는 98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지냈으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연구중심의 학교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서 부임하게 되었다고 이곳에 오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석 교수는 이번 학기에 보험론을 강의하며, 강의 및 연구분야는 Finance, Insurance, Information Economics, Application of Insurance 이다.

석 교수는 "전반적으로 학교의 강의실 시설이 좋고 강의 지원이 잘 돼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가 인상적이었다"고 첫 강의를 마친 후 소감을 밝혔다. 석 교수가 추구하는 강의의 목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자발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강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이론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성향에 많은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강의의 적절한 수준과 방법을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석 교수는 학생들에게 테크니컬한 내용과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학문적 결과의 아이디어와 기본 원리를 많이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 B.A.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1986)
- M.S.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1988)
- Ph.D. in Insurance,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5)

취재 정리 김문용기자

< 해외에 있는 졸업생 현지 인터뷰 >

“우뚝 선 그대”



이재남 교수



1. 테크노경영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었습니다.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 STM(현 LG-CNS)에 입사를 했습니다. 3년 정도 회사 근무 후, 한계를 느끼고 보다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경영정보 분야에서 제일 뛰어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대학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장 좋았던 것은 제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 반 만에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김영걸 교수님 뿐만 아니라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교수님,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MOFIS 연구실과 다른 연구실들의 선·후배들, 이 모든 분들은 제가 졸업 한 후에도 저의 큰 재산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공부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조금 남습니다.

3. 대학원 생활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저는 석박사과정을 다니면서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친 후에 회사로 다시 돌아갔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했던 역할이 컨설턴트였기 때문에 좋은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배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외국대학의 교수로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외국에서 교수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솔

직히 막연하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외국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해보니, 타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이 가장 컸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의사소통은 되지만 서로 다른 독특한 표현, 발음, 억양을 사용합니다. 이런 다양한 영어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적 충격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사람이 아니고, 외국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학생일 때는 실수를 해도 지도교수님의 많은 협조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교수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 하고 모든 문제를 제가 스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처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7. 후배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KAIST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었지만 KAIST에서 소중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한 교수들과 연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한다고 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고,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생활에서는 영어의 뒷받침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8. 향후 포부내지는 목표는 어떤 것이지요?

모든 교수들이 꿈꾸는 것처럼 국제적인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보시스템 분야의 최고의 학술지인 'MIS Quarterly'에 저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많은 논문발표를 통해서 제가 연구하는 Outsourcing과 Knowledge Management 분야에서 최고의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연구에 대한 열정과 함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 정리 | 이인팔기자

AIM:

최고정보경영자과정

AIM 제16기 수료식 (7월 24일)

AIM 16기 수료식과 함께 수료기념 만찬이 치루어졌다. 이번 수료자는 총 34명으로 이날 수료식에서 이완경 LG투자증권 부사장이 최우수보고서상을 수상하였으며, 김종창(기업은행 행장), 박환균(코스닥 전무) 동문이 공로패를 받았다.

AIM 제17기 입학식 (8월 28일)

AIM 17기가 최종현 홀에서 입학식을 갖고 교육일정에 들어갔다. 박정인 현대모비스회장, 신호주 코스닥 사장(동기회장) 정두호 LG실트론 대표이사, 이진명 쌍용화재 사장, 이승구 현대산업개발 부사장, 조석제 LG구조조정부 부사장 등 37명으로 구성된 이번 17기는 첫 교육부터 지난 어느 기수 보다 높은 교육열을 보이며 강의실을 뜨겁게 달구었다.

AIM 제17기 1차 워크샵 (8월 30일~31일)



AIM 입학과 함께 대전 KAIST 본원을 방문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동기간 친목을 강화하는 AIM 전통의 행사로 참석자들은 KAIST 의과학센터를 견학한 후 유육준 교수의 "기능유전체 연구와 바이오텍 벤처" 강의와 홍창선 KAIST 원장으로부터 "한국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또 반별 비즈니스게임을 통해 반원간의 협력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AIM Techno Club 정식발족

지난 7월 15일, AIM 11~17기 회장단 합동회의에서 "AIM Techno Club"을 결성하기로 하고, 회장에는 14기의 김태욱 회장(한국옵티그마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고, 부회장(간사장 겸임)은 14기의 최풍남 사장이 맡

게 되었다.

이 모임의 취지는 동기간의 우정과 모교사랑의 열정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모임을 이루고자 함이며, 지난 9월 5일, 조찬모임과 단합골프대회를 통해 AIM Techno Club의 첫 모임과 발대식을 가졌다.

AIM 부인회 활동

AIM 11기와 16기 동기회는 지난 5월 각각 부인회를 조직하여 출범시켰다. 각 동창회 기금의 일부를 종자돈(seed money)으로 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이번 부인회 출범은 앞으로 AIM 동창회의 새로운 활동모습을 기대하게 한다. 16기 부인회에서는 첫 활동으로 지난 9월 5~6일 경남 함양의 인산가를 방문하여 인산가 농장 및 관련시설을 견학하고 김윤세 동문으로부터 건강강좌를 수강했다. 이어 마천면 수해복구현장에 들러 수재의연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AVM:

최고벤처경영자과정

AVM과정 제9기 입학식(8월 30일)

AVM 제9기 입학식이 수펙스 경영관 최종현홀에서 있었다. 이번 9기에는 벤처기업 대표이사 16여명을 포함한 22명이 입학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총 8주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11월에는 실리콘밸리와 시애틀에서 해외연수가 있을 예정이다.

AVM 제9차 워크샵(9월 13~14일)

AVM 제9기 워크샵이 대전 유성 호텔 리베라에서 열렸다. 워크샵은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 방문 및 견학, 인공위성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하여 특허청의 이은철 심사관, KAIST 유육준 교수, KAIST 양동열 교수, 중소기업청의 장기종 차장의 유익한 강의가 이어졌다. 또한 기업소개 및 모임 시간을 통해 수강생들간에 한층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ATM:

최고-발레를 경영자 과정

ATM 제2기 입학식(8월 29일)

ATM 제2기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수펙스경영관 최종현홀에서 열렸다. 이번 2기에는 정보통신 각 분야의 대표이사 및 KT, KTF 등 국내 주요 통신사 임원들을 포함하여 총 22명이 입학하였으며, 이들은 앞으로 15주 동안 정보통신산업 동향파악 및 개인실습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ATM 제2기 1차 워크샵(9월 6일~7일)

ATM 제2기 워크샵이 대전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2기 과정생들은 먼저 KAIST 인공위성센터를 방문했고, 이어서 'SOC 기술동향'을 주제로 KAIST 경종민 교수에게 강의를 들었다. 둘째날인 7일에는 반별 비즈니스게임을 통해 협력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K-CEO:

지식최고경영자 과정

매경-KAIST K-CEO 제9기 입학식 (8월 29일)

제9기 매경-KAIST K-CEO과정 입학식이 테크노경영대학원 수펙스경영관에서 열렸다. 이번 9기 과정부터는 과정명칭이 최고지식경영자(CKO)에서 지식최고경영자(K-CEO)과정으로 바뀌었고 각 분야의 CEO들이 많이 참여했다.

매경-KAIST K-CEO 포럼 조찬 (8월 29일)



K-CEO과정 동문회가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후원하는 매경-KAIST K-CEO 포럼 조찬행사가 지난 8월 29일 인터컨티넨탈 호텔 국화룸에서 열렸다. 이번 조찬에서는 김종수 KDI원장이 '내년(대선이후) 한국경제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매년 70-8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는 K-CEO 포럼조찬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열린다.

AIC:

최고사내컨설턴트 과정

AIC 제3기 입학식 (9월 10일)



AIC 3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테크노경영대학원 수펙스경영관에서 열렸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성희 교수의 "Smart Management Strategy"라는 강의와 황화정 엔트루 컨설팅 책임컨설턴트의 "Problem Solving & Logical Thinking"을 주제로 한 강의를 열었다.

SK텔레콤, LG마이크론 등의 회사로부터 온 50명의 AIC 3기 동문들은 앞으로 14주 동안 각종 사례와 함께 문제 해결 능력 및 경영 전략, 지식경영, 고객 관계 관리(CRM), 공급 사슬망 관리(SCM) 등에 대해 교육받을 예정이다.

취재 정리 | 김승하기자



<주변의 맛집 / 멋집 소개>

'이 근처 맛 좋고 분위기 좋은 곳 어디 없나' 하고 궁금하셨죠?
테크노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소문난 학교 주변 맛집/멋집을 찾아 소개합니다.



중국 음식 맛있는 곳

진성반점(鎭成飯店) 923-4746

40년 전통의 정통 중국요리 집. 배달은 가급적 안 하므로, 직접 가서 맛 보세요.

속이 짝 찬 순대

오소리순대 918-9797

50년 정도 된 유명한 순대집. 커다란 무와 상추 무침이 함께 나옴. '오소리(吾小利)'는 '나는 이익을 조금만 본다'라는 뜻이래요. 시설도 깨끗.

싸고 맛있고 푸짐한 경희대 앞 백반집

도읍지 964-2388

아늑한 시골집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일곱가지나 되는 다양하고 정갈한 밑반찬이 일품인 백반집.

여기가 좋겠네 968-9112

맛 좋고, 가격 저렴하고, 분위기까지 좋은 닭도리탕(감자탕) 전문집.

시원한 국물에 속이 짝 찬 만두와 쫄깃쫄깃한 칼국수를 드시려면

은성칼국수 962-5478

20년 전통의 칼국수집. 점심시간엔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 손칼국수/항아리수제비(3,000원), 만두국(3,500원). 칼국수와 만두국에는 약간의 공기밥이 함께 나옴.

피자 같은 두툽한 파전과 동동주 한잔? 할머니파전, 나그네파전

피자보다도 크고 두꺼운 파전에 시원한 동동주 한 사발로 공부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곳. 깔끔한 고

추전도 일품. 회기역에서 경희대 방향으로 30m 정도 걸으면 보이는 LG25시 왼쪽의 파전골목.

맛있는 고기집

세겹살.com 959-0461

음식과 맛, 가격 모두 추천.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모던함. 메뉴는 와인숙성 대나무 천겹살(맛이 삼겹살하고 틀리게 쫄깃쫄깃), 목살, 고기를 먹고 난 후 먹는 맛배기 해물볶음밥 등. 똑배기 된장찌개도 함께 제공.

Kogii Kogii(코기코기) 960-0075

다채롭고 이채로운 향, 색과 함께 10가지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허브삼겹살 전문점. 삼겹살을 햄버거나 스파게티처럼 여러 가지로 골라서 먹을 수 있으며 각종 소스에 찍어먹는 맛이 일품.

닭고기 맛있는 곳

보드람치킨 969-7721

이 곳의 치킨 한 마리는 다른 곳의 반 마리 밖에 안되지만 그 맛을 수 없는 맛 때문에 인기 있는 곳.

사바나 숯불바베큐 964-3392

기존의 치킨집들과 차별화된 독특한 조리법 덕분에 무척 인기가 많은 곳. 모든 치킨을 숯불에서 구워 그 특유의 맛과 향이 그대로 남아있음. 자정 이전엔 기숙사로도 생맥주와 함께 배달 가능.

조용하고 고등스런 분위기의 전통 찻집 녹원 962-3361

경희인이 추천하는 회기동 모범가게로 선정되기도 함. 국악과 가야금 연

주가 흘러나오는 이곳에 들어서면 20대 학생들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얼굴들을 접할 수 있다. 녹차는 물론 우리 전통차 그리고 한방대용차까지 20 여 개의 차를 맛볼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 모과차와 유자차는 직접 담가서 제공할만큼 학생들의 건강에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

저렴한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생맥주 호프집

BUD

각종 외국산 병맥주를 시중 업소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

원더우먼(Wonder Woman) 966-1560

생맥주와 각종 순대볶음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곳. 술손님에게는 계란찜을 무료로 제공. 문득 시원한 맥주와 순대볶음이 당길 때 추천.

가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커피향 가득한 곳

Sweet Buns 969-9381

쿠폰을 사용하여 5잔을 먹으면 1000원짜리가 무료이며, 10잔을 채우면 최대 2,200원까지 먹을 수 있다. 대부분의 차와 음료가 1500~2500원 사이.

City of Espresso 960-3932

다른 시티 오브 에스프레소 체인점과는 달리 1층은 모던한 카페로, 2층은 아트 갤러리로 꾸며져 있다. 대학가 앞이라 가격도 매력적!

취재 정리 | 김문용기자

2002년 가을의 테크노인 마세영씨 선정 (MIS MBA/Telecom MBA 전공 담당)



마 세 영
MIS-MBA /
Telecom-MBA
전공 담당자

지난 9월 26일, 테크노경영대학원 가을의 테크노인으로 MIS MBA와 Telecom MBA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마세영씨가 선정되었다. 마세영씨는 ITSP(SK 텔레콤 임원/관리자과정), Telecom MBA 과정 설립 업무 등 학위/비학위 과정 2개를 동시에 맡아 초기 교육기반 조성에 이바지하였고, 운영회의를 통해 Telecom MBA 교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기함으로써 전공필수 이수요건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현재 10월초 출산으로 산후휴가 중인 그녀를 인터뷰하였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제5회 테크노인 상을 받게 된 소감은?

말은 업무에 충실하려 노력하고, 꾸준히 생활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 이런 상을 받고 보니 처음 입사해서 초창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보게 된다. 항상 믿고 격려해준 교수님들과 직원들, 학생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출산휴가동안 직무대행을 해주고 있는 황은정씨와 MBA 전공사무실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통신 분야 관련 일을 주로 담당하셨는데 통신 분야와는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처음 입사할 때 SK 텔레콤과 산학협동으로 연계된 ITSP 과정을 담당했는데, 그 때 통신 관련 교수님 및 통신 회사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계속 통신 분야 일을 주로 하게 되었다.

끝으로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테크노경영대학원에 입사 후 계속해서 모든 일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고, 여러 가지 도전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한편으로는 이곳을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들 노력 중이다. 현실에 만족하고 안정을 추구하기 보다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속도를 늦추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여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길 바란다.

취재 정리 | 김승하기자

신간 소개『테크노폴리틱스』..... 민경진(테크노경영 MBA 1년)

저자가 컬럼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썼던 급변하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일으키는 사회 변혁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칼럼들을 모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급하게 내달리는 과학기술의 진상과 문명의 대응방식을 '테크노폴리틱스'라 이름 짓고 테크놀로지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저자 민경진씨는 현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MBA에 재학중이며, 광고대행사 제일기획에서 6년간 해외PR 실무자로 있으면서 세계 곳곳을 누볐고, 현재 인터넷 웹진 '대자보'에서 사이버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 후기

- 'KAIST GSM의 목소리를 제대로 냈는지 항상 자신에게 의문이 듭니다 - 권철현(경영공학 박사과정 1년)
- 사람들을 만나고..또 한 편의 글을 쓴다는 것. 프론티어는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배워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 준 소중한 선물이었다. - 김문용(경영공학 석사과정 2년)
- 지난 1년간의 짧은 기자 생활을 벌써 마감하게 되었다. 그간 느낀 점이라면..?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고, 해서 안 되는 일도 하나도 없다! - 김승하(경영공학 석사과정 2년)
- 정든 프론티어, 정든 학교, 정든 고향...이 가을 많은 정들이 새록 새록하다. -김정배 (테크노MBA 2년)
- 뜻밖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전하는 그릇이 되어 준 프론티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던 학교 생활에 대한 또 하나의 자취이며 보람이 되었습니다. - 송재현 (경영공학 석사과정 2년)
-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 이 곳에 그대와 내가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 - 이인팔 (테크노MBA 2년)

취재 정리 | 송재현기자

2003학년도 KAIST MBA 로 유학오십시오!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은
범세계적인 시야를 가지고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술을 아는 경영인, 경영을 아는 기술인'을 양성하는
국제 수준의 경영대학원입니다. 본 대학원의 MBA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3학년도 입학전형 내용 및 일정

내 용	일 정
원서교부	2002. 11. 4(월) - 11.11(월)
원서접수	2002. 11. 13(수) - 11. 16(토)
영어시험	2002. 11. 22(금)
제1차 합격자 발표	2002. 12. 4(수)
면접시험	2002. 12. 9(월) - 12.11(수)
최종합격자 발표	2002. 12. 17(화)

- 입학시험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체에서 교육경비를 부담하는 학생은 해당기업의 입학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 (02)958-3214, 3216

2002 KAIST MBA Open School (입학설명회)

- 일시: 2002. 10. 18(금), 18:30 - 21:30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등록만 가능합니다.
- 장소: KAIST 서울 홍릉캠퍼스 1호관 대강당

모집전공 및 학위 (서울 홍릉캠퍼스)

■ MBA(경영학석사) 과정

: 총 200명 내외 (현 재학생규모: 346명)

- 테크노경영전공 (Techno-MBA)
기술·생산경영 / 마케팅 / 벤처경영
/ 회계·재무 및 경영분석 / e-비즈니스 / 전략 및 조직
- 경영정보전공 (MIS-MBA)
- 통신경영/정책전공 (Telecom-MBA)
- 금융공학전공 (FE-MBA)
- 환경경영/정책전공 (Green-MBA)

2002 KAIST MBA Job Fair (취업박람회)

- 일시: 2002. 10. 9(수) 13:30 - 17:30
* 국내 MBA 시장을 선도하는 KAIST가 처음으로 마련한 취업박람회
- 장소: KAIST 서울 홍릉캠퍼스 SUPEX경영관

<http://kgsm.kai.ac.kr>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분류 번호	200210012101	자료 물명	Frontier 제 21호
인수 일자	2003 03 05	제출 자명	홍 보